DBpia

후고려 궁예와 고려 왕건의 계승관계와 강진불교계의 동향

Succession of Hu-Coryo[] Gungye[] and Coryo[] Wanggun[] and a Trend of Gangjin[]-Buddhism

저자 (Authors)
조경철
Jo, Gyungcheol

출처 (Source)
다산과 현대 (9), 2016.12, 197-227(31 pages)
Tasan & Contemporary Times (9), 2016.12, 197-227(31 pages)

발행처 (Publisher)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25531

APA Style
조경철 (2016). 후고려 궁예와 고려 왕건의 계승관계와 강진불교계의 동향. 다산과 현대 (9), 197-22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후고려 궁예와 고려 왕건의 계승관계와 강진불교계의 동향

조 경 철
나라이름역사연구소

차 례

1. 머리말
2. 궁예가 세운 나라, 고려
3. 11세기 의천(1055~1101)의 궁예·왕건 인식
4. 김부식 『삼국사기』의 궁예 인식
5. 『삼국유사』의 궁예와 왕건 인식
6. 『제왕운기』의 궁예와 왕건 인식
7. 현 역사교과서의 궁예와 왕건 인식
8. 강진불교계의 동향과 궁예 왕건 인식
9. 맺음말
Abstract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1. 머리말

제목의 후고려는 후고구려를 말한다. 흔히 궁예가 세운 나라를 후고구려로 알고 있다. 궁예가 고구려란 나라를 세웠고 주몽의 고구려와 구분하기 위하여 후고구려로 부르고 있다. 견훤이 세운 나라가 백제였고 온조의 백제와 구분하기 위하여 후백제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서로 다투던 시기를 후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실은 궁예가 세운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였다. 궁예가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은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고려란 나라이름은 궁예가 처음 사용한 나라이름은 아니다. 고구려가 4~5세기를 전후하여 나라이름을 고려로 바꾸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할 때 나라이름은 고려였다.

따라서 궁예의 고려란 나라이름은 바로 고구려가 나라이름을 바꾼 고려란 나라이름을 다시 사용한 것이다. 궁예는 이후 나라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바꾸었다. 궁예의 고려를 고구려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왕건의 고려시대 사람들은 궁예의 고려를 '후고려'라고 불렀고 발표자도 이것을 따르고자 한다.

신하인 왕건은 자신의 군주인 궁예를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왕건은 되도록 궁예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군주를 죽인 자신의 정당성을 앞세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건은 새로 세운 나라의 이름을 새로 짓지 않고 궁예가 맨 처음 사용한 고려란 나라이름을 다시 사용했다. 이것만 보아도 궁예와 왕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궁예와 왕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둘의 계승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고려'란 나라이름과 강진 무위사의 선각대사 형미를 둘러 싼 궁예와 왕건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2. 궁예가 세운 나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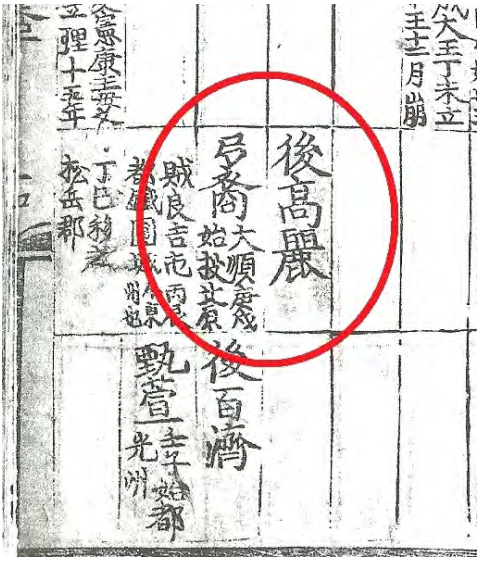

그림 1] 『삼국유사』[파른본] 왕력의 '후고려'

궁예가 세운 나라를 보통 후고구려로 알고 있다. 주몽의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궁예는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했고 주몽의 고구려와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앞에 '후'을 붙여 후고구려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 궁예는 나라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궁예가 세운 나라는 고려였지 고구려가 아니었다. 궁예가 세운 나라를 고구려 혹은 후고구려라고 부른 적은 전근대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후고구려라고 부르는 것은 근래에 들어서 이다.

궁예가 세운 고려란 나라이름은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고 『삼국유사』에 보인다. 『삼국유사』 왕력에는 나라의 표제어를 '후고려'라고 했고[그림1], 이어서 궁예가 901년 나라이름을 고려로 하였다고 되어있다[신유칭고려(辛酉称高麗)][그림2]. 『삼국유사』 왕력에 의하면 궁예는 '고려'란 나라를 세웠고 '왕력'을 편찬한 고려시대 사람들은 궁예의 '고려'란 나라이름을 자신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하여 궁예의 고려를 '후고려'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고려와 궁예의 고려를 구분하려면 '후'가 아닌 '전'을 붙여야 하는데 왜 '후'를 붙이고 '후고려'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고 했을까? 고려시대 사람들은 '후고려'라고 쓰고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세운 궁예의 고려를 말하는 걸로 알아들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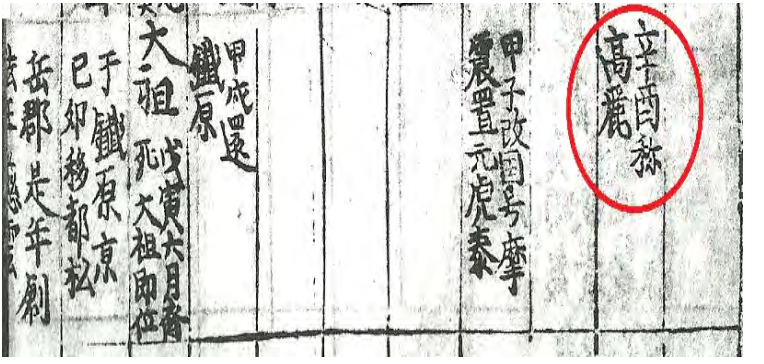

그림 2]『삼국유사』[파른본] 왕력. '(궁예)辛酉稱高麗'

궁예의 고려를 '후고려'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궁예 이전에 또 하나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유물 가운데 연가 7년명 불상과 충주 고구려비가 있다. 연가 7년명 불상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되어 국적의 논란이 있었지만 고구려 불상으로 밝혀졌다.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비석으로 장수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가 7년명 불상의 뒷면 광배(光背)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고려국(高麗國)'이라 쓰여 있고, 충주 고구려비에는 '고려태왕(高麗太王)'이라고 쓰여 있다.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자신들의 불상과 비석에 자신의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충주 고구려비에 '고려태왕'이라고 한데서 고구려가 '고려'란 나라이름을 같이 쓴 차원을 벗어나 나라이름을 아예 고려로 바꾸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4~5세기 이전에는 '구려', '고구려'가 보이다가 이후에는 '구려'. '고구려'. '고려'가 보이고『수서』와『당서』에는 고려만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려가 단순히 고구려의 줄임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이 아니고 정식 명칭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발해 관련 기록에 모두 '고려'로만 나오고,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에도 '고려'만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국호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하는 궁예가 단순히 고구려의 줄임말인 '고려'를 자신의 나라이름으로 채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가 정식으로 바꾼 국호 고려를 궁예는 자신의 나라이름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림 3] 제왕운기, 후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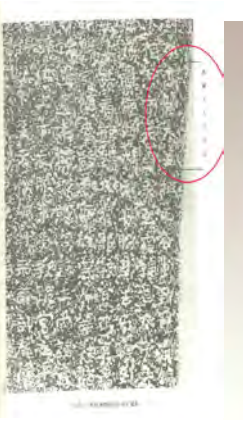

그림 4] 충주 고구려비 [고려태왕]

그림 5] 연가 7년명 불상[고려국]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고구려를 '고구려'로 부르면서 궁예를 '후고려'로 부르고 있다. 즉 고구려(주몽) - 후고려(궁예) - 고려(왕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궁예가 세운 나라이름이 엄연히 '고려'인데 마음대로 '(후)고구려'로 부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계승관계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궁예가 세운 나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궁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3. 11세기 의천(1055~1101)의 궁예 · 왕건 인식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11대 문종의 넷째 아들로 초조대장경에 이어 교장[속장경]을 편찬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각국사문집』에 보이는 『표하론(驃訶論)』[1]은 같은 책 다른 곳에 보이는 『화엄기(華嚴記)』[2]와 같은 책으로[3] 전고려(前高麗) 때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의천이 말한 전고려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보이는 궁예의 후고려에 대응한 전고려 즉 고구려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최연식은 의천이 『표하론』의 저자로 언급한 전고려 사람이란 고구려가 아니고 후고구려 사람이란 견해를 피력했다.[4]

1991년 중국에서 펴낸 요, 금대 방산석경의 탁본자료집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에 소개된 『건나표가일승수행자비밀의기(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이하 비밀의기)라는 문헌이 중국 문헌이 아니라 한국에서 찬술된 문헌이며 특히 의상의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은 화엄학 문헌으로 확인되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저자에 대한 설명과 의천의 언급을 비교해 보면 『비밀의기』가 바로 『표하론』임을 알 수 있다.

『비밀의기』의 서문에 의하면 저자 법장은 평양 신성(新城) 사람이라 하였고 멀리 서쪽으로 가서 공부하려고 대향산(大香山) 지역에 이르렀다고 하였다.[5] 최연식은 여기의 평양 신성을 고려시대 이후 서경의 신성부곡[6], 대향산은 묘향산으로 비정하였다.[7] 그런

---

1) 『대각국사문집』권11, 「與大宋行者顔顯書」 "(전략) 所惠六題 披閱諷味 暫不釋手 銘於肺腑 何日云忘 仍示及驃訶論 乃前高麗時 晩學涉獵之輩 與吾祖名同者爲之 盖(無)取焉 不意流於上國 忸怩忸怩(후략)"

2) 『대각문사문집』권11, 「上大宋淨源法師書」, "往年行者顔顯到來 曾辱手教下勝明佩 (중략) 送下華嚴起三卷 似非賢首所述 切恐好事者 假託明子 伏請悉察"

3) 최연식,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와 나말여초 화엄학의 일동향」, 『한국사연구』126, 2004, 144~145쪽 ; 최연식, 「후고구려 불교의 재검토」, 『보조사상』40, 2013.

4) 최연식, 앞의 글, 2004, 2013.

5)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法藏比丘者 平壤新城人也 其父早卒 母孀育養 年十四出家 聰明好道 遠向西防學道 至於大香山(하략)"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데 평양신성이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없는 지명이므로 여기의 전고려는 고구려도 아니고 왕건의 고려도 아닌 궁예의 고려 즉 후고구려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비밀의기』에는 화엄경의 내용을 7세기 말 실차난타가 번역한 『신역화엄경』의 7처 9회로 구분하고 있고, '대일광명존' '대일존' 등의 존명은 725년 번역된 밀교경전 『대일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또한 『비밀의기』가 고구려에서 편찬되지 않았다는 전거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비밀의기』는 궁예 정권 수립 이후 즉 후고구려에서 찬술된 것으로 후고구려의 불교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의천이 언급한 전고려가 후고구려를 말하는 것인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양 신성의 신성은 요동에 있었던 고구려의 성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장이 멀리 서쪽으로 공부하려고 대향산에 이르렀다고 한 것도 현 평양 근처의 묘향산이 아니라 서쪽 중국 하남성의 대향산으로 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남성은 방산석경이 있는 하북성과 인접해 있기도 하다. 문제는 평양 신성의 평양인데 이 평양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현 평양이 아닌 지역, 예를 들면 요동의 평양을 말할 수도 있고 고구려를 평양이라 불렀을 수도 있다.[9]

그리고 『비밀의기』는 7세기 말 『신역화엄경』과 8세기 전반 『대일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668년 멸망한 고구려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지만, 9세기 전반 흥덕왕 때 고려 승 구덕을 흥륜사로 맞이했다는 기록[10]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가 멸망했지만 고구려

6) 『고려사』권58 지리지3 "三登縣 仁宗十四年分西京畿爲六縣 以成州所屬新城鞾坪狗牙等三部曲合爲本縣置令"
7) 최연식, 앞의 글, 2013.
8) 최연식, 앞의 글, 2013.
9) 중국은 (전)고려를 칭할 때 고려보다는 의도적으로 별칭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아직까지 평양의 예는 없지만 (전)고려를 칭할 때 '낙랑' '현도' '요양' 등 군현명이나 지역명을 사용한 경우도 24회에 이른다고 하였다(최진열, 「당대 고구려 표기 기피현상」, 『동북아역사논총』38, 2012, 238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출신의 승려를 엄연히 고려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덕왕 때 고려승 구덕을 왕건의 고려시대 사람이 부르게 되면 전고려승 구덕이 된다. 따라서 『비밀의기』를 지은 전고려 사람은 후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고구려 멸망 이후 중국에서 활동한 고구려 후손으로 보아야 한다.

의천이 고구려를 전(前)고려라고 불렀을 때 전고려는 고구려를 말한다. 고구려가 고려로 나라이름을 바꾸었고 고구려가 망할 때 나라이름은 고려였다. 그럼 여기의 전고려의 전(前)이 궁예의 고려와 대비한 것인지 왕건의 고려와 대비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삼국유사』의 왕력이나 『제왕운기』에서 궁예의 고려를 후고려로 칭한 예를 참조한다면 의천이 언급한 전고려는 궁예가 세운 고려와 대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918년 왕건이 세운 이후 11세기 고려는 궁예가 세운 고려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4. 김부식 『삼국사기』의 궁예 인식

김부식은 『삼국사기』 '궁예열전'에서 다음과 같이 궁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궁예는 강성해졌다고 자만하여 [신라를] 병탄하고자 하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신라의 [경주를] 멸도滅都라고 부르게 하였고 신라로부터 오는 자는 모두 죽여 버렸다

10) 『삼국사기』 신라본기 흥덕왕 2년, "三月 高句麗僧丘德入唐 貴經至 王集諸寺僧徒 出迎之"
『삼국유사』 탑상, 전후소장사리, "'興德王代太和元年丁未 入學僧高麗釋丘德 貴佛經若干函來 王與諸寺僧徒 出迎于興輪寺前路"

11) 의천이 언급한 전고려가 최연식의 견해대로 후고구려를 의미한다하더라도 궁예와 왕건의 계승관계는 더 뚜렷해진다. 궁예가 고려를 세웠고, 왕건도 고려를 세웠으므로 왕건이 궁예의 고려를 이어받았고 그래서 궁예의 고려를 전고려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정명 원년(915) 부인 강씨가 왕이 옳지 않은 법을 많이 행하자 정색으로 간하니 왕이 미워하여 말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과 간통하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인가?"하였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강씨가 말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는 신통력으로 보아 안다"하고는 뜨거운 불에 쇠 절구공이를 달궈서 그 음부를 쳐서 죽였다.

강씨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이후 더욱 의심을 많이 하고 성을 급하게 내니 모든 관료, 장수, 아전들 및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부양, 철원 사람들은 그 해독을 견딜 수가 없었다.

군주인 궁예를 죽이고 왕이 된 왕건이 세운 나라 고려의 신하인 김부식은 자신이 지은『삼국사기』에서 궁예를 가장 악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부식은 왕건의 고려란 나라에서 철저히 궁예를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김부식은 궁예가 처음 세운 나라 '고려'를 언급하지도 않았다.『삼국사기』의하면 궁예가 처음 세운 나라는 마진이다. 궁예가 '고려'란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왕건의 고려란 나라이름은 궁예의 고려를 계승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김부식은 궁예의 고려란 나라이름을 없앰으로써 궁예와 왕건의 계승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5.『삼국유사』의 궁예와 왕건 인식

『삼국유사』왕력은 궁예와 왕건의 계승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왕력에 '고려'란 항목에 고주몽을 배치하고 궁예의 항목에 '후고려'라고 한 다음 "궁예가 고려를 칭했다" 고 하였다. 궁예가 죽자 왕건이 즉위하였고 특별히 왕건이 고려란 나라이름을 칭했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왕건이 고려란 나라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왕건이 주군인 궁예를 죽였다는 언급은 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하고 단지 '궁예사(弓裔死)'라고만 쓰여 있어 궁예에서 왕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궁예가 세운 고려를 숨기고 마진, 태봉을 언급한 반면『삼국유사』왕력은 궁예가 고려를 세우고 마진으로 나라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태봉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삼국사기』가 태봉의 궁예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반면『삼국유사』왕력은 궁예의 태봉에 대해 우호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

궁예가 세운 처음 세운 나라가 '고려'인 것은 확실한데 궁예의 고려는 이전의 어떤 나라이름을 계승했는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전 주몽의 고구려에서 '구'자를 빼고 궁예가 고려라고 했는지, 아니면 고구려의 별칭인 고려를 궁예가 그대로 취했는지, 아니면 고구려가 정식으로 국호를 바꾼 고려를 궁예가 그대로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세 가지 경우가 비슷비슷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고구려가 정식으로 나라이름을 바꾼 고려를, 궁예가 자신의 나라이름으로 삼았다면, 궁예의 계승의지가 남달랐다고 볼 수 있다.『삼국사기』궁예전에 의하면 궁예는 901년 왕을 칭하면서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였으므로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였다. 김부식이『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고려'를 '고구려'로 바꾸었기 때문에 궁예의 말 속에 나오는 '고구려'는 원래 '고려'였다. 따라서 궁예는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망한 '고려'를 다시 일으키려 하였고 그래서 새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이다.

궁예가 처음 나라를 세울 때 무엇보다 중요시 한 것은 나라이름이었다. 특히 견훤은 892년 먼저 백제란 나라를 세우고 나당연합군에 위해 멸망한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였다. 궁예도 이를 참조하여 자기의 나라이름을 고구려로 할지, 구려로 할지, 고려로 할지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주몽이 세운 나라를 계승한다면 주몽의 정식국호를 계승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주몽이 세운 나라를 칭할 때 고구려라고 했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만 대부분 고구려로 부르지 않고 고려라 칭하고 있다. 그리고 왕건의 고려는 '본조'라고 칭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고구려는 4항목에 총 8회가 보인다. 대부분 고구려의 건국과 초기 역사를 설명하는 곳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졸본부여가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비류수 가에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다, 고구려를 변한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등등.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끝으로 『삼국유사』에서 고구려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12] 단 김부대왕 항목에서 고구려란 나라이름이 멸망시기에 등장하지만[13] 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사론을 인용[14]한 것이므로 예외이다. 김부식은 의도적으로 고려의 칭호 대부분을 고구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를 대부분 고려로 표기하고 있다. 전고려와 후고려의 고려를 제외하고 총 61회가 찾아진다. 시기는 고조선조의 '고려본고죽국(高麗本竹國)'처럼 기원전부터 시작하여 '고려승구덕(高麗僧丘德)'의 예처럼 통일신라 시대에도 쓰이고 있다. 고구려란 국호가 4세기까지 보이는데 비하여 고려란 국호는 전시기를 통해 쓰여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수도 고구려는 8회에 불과하지만 고려는 61회다. 61회 이외에 왕건의 고려도 고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전고려는 총 1회가 보인다.[15] 왕건의 고려 입장에서 '전의 고

12) 『삼국유사』 남부여전백제, "至十三世近肖古王 咸安元年 取高句麗南平壤 移都北漢城(今楊州)" 이 기록을 존중한다면 고구려에서 고려로의 국호 변경은 근초고왕(346~375) 때 이후가 된다. 고구려의 고려 국호 변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그 시기를 보통 장수왕 때 또는 광개토왕 때로 보고 있다. 좀 더 앞당긴다면 희박하지만 소수림왕(371~384) 때 까지 소급할 수 있다. 고려에 사신을 온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 「始封」에 "至紇升骨城而居 自號曰高句麗 因以高爲氏 而以高麗爲國"이라고 했는데, 고구려에서 고려로 나라이름이 바뀐 것을 암시하고 있다.

13) 『삼국유사』 김부대왕, "史論曰 (중략) 又憑王師之威靈 平百濟高句麗 取其地(爲)郡縣 可謂盛矣"

14) 『삼국유사』는 곳곳에서 '고려본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김부식의 사론에 나오는 고구려를 『삼국유사』에서 인용할 때 그대로 고구려로 한 점을 감안하면 '고려본기'는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삼국유사』왕력에서 궁예의 고려를 후고려라고 하고 있으므로 후고려에 대응하는 '전고려'로 전과 고려를 붙여 전고려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궁예가 처음 세운 나라를 고구려라고 하고 주몽의 고구려와 구분하기 위하야 후고구려라고 부르고 있지만 궁예가 처음 세운 나라는 고려였다. 이후 궁예는 마진, 태봉으로 나라이름을 바꾼다.『삼국유사』에서 궁예가 세운 나라를 고려라고 한 것은 1회로 '왕력'에만 보이고 있다.『삼국사기』에는 궁예가 고려란 나라를 세운 것을 언급하지 않고 마진, 태봉을 언급했고『고려사』는 태봉만을 언급했다.

『삼국유사』왕력에는 신라, 백제, 고려, 가야 네 나라를 들었다. 백제에는 주몽의 백제와 견훤의 후백제를 서술했고, 고려에는 주몽의 고려, 궁예의 후고려, 왕건의 고려를 서술하였다. 왕력의 '후고려'란 나라이름은 고구려의 고려 즉 전고려와 구분하기 위하여 후고려라고 한 것이다.『삼국유사』에 후고려란 나라이름은 총 3번 등장하는데[16] '천사옥대'와 '황룡사 9층탑' 의 두 경우는 항목은 다르지만 신라 삼보와 관련하여 비슷한 의미로 후고려가 등장한다.

일본 역주『삼국유사』의 천사옥대에서는 '후고려'를 'のちに高麗', 황룡사 9층탑에서는 '고구려'로 해석하였다.[17] 한중연 역주[精]에서는 천사옥대의 '후고려'를 '그후 고구려왕이'라고 하였고 황룡사 9층탑의 '후고려'를 '후에 고구려왕이'라고 해석하였다.[18]고려대 역주[麗]의 천사옥대에서는 '그 후에 고구려 왕이'라 하였고,

---

15)『삼국유사』고려영탑사, "僧傳云 釋普德 字智法 前高麗龍岡縣人也"

16)『삼국유사』왕력, "後高麗 弓裔 大順庚戌 始投北原賊良吉屯 丙辰都鐵圓城「今東州也」丁巳移都怯岳郡"
『삼국유사』천사옥대, "後高麗王將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不可犯"
『삼국유사』황룡사 9층탑, "後高麗王將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 不可犯也"

17) 三品彰英撰,『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1975, 577쪽: 村上四男찬,『三國遺事考證』(下之一), 塙書房, 1994, 185쪽.

18) 강인구 외 역주,『역주삼국유사』(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312쪽 ;『역주삼국유사』(3), 2003, 135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황룡사 9층탑에서는 '이 후에 고려(고구려)왕이'라고 하였다.[19] 한중연과 고려대본에서는 모두 '후고려'의 고려를 '고구려'로 보았다. 이보다 앞서 일본본에서는 천사옥대에서 '고구려왕이'라고 해석하고 각주에서 자세한 설명은 황룡사 9층탑에 넘긴다고 했는데 정작 여기서는 단지 '후에 고려의 왕이'라고 해석만 하고 각주도 달고 있지 않았다. 일본본에서는 외견상 '후고려'의 고려를 천사옥대에서는 고구려로, 황룡사 9층탑에서는 왕건의 고려로 보는 것 같다. 한중연과 고대본에서는 모두 고구려로 보았다.

지금까지 천사옥대와 황룡사 9층탑의 '후고려'를 일반적으로 고구려로 보아왔는데 본 글에서는 궁예의 고려와 왕건의 고려일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후고려'의 고려를 왕건의 고려로 보고 해석을 '후에 고려왕이'라고 해 보겠다. 지금까지 주몽의 고려와 궁예의 고려와 관련된 기록에서 신라 3보에 대해 물어 본적은 없다. 그런데 왕건의 고려에서는 신라 3보에 대해 물어 본 기록이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명왕 5년(921, 태조왕건 4년) 사신으로 다녀온 김율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제가 지난해 고려에 사신으로 갔을 때 고려왕이 저에게 묻기를 '듣건데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장륙존상과 구층탑 그리고 聖帶가 그것이라고 한다. 장육존상과 구층탑은 아직도 있으나 성대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 천사옥대조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분주가 달려있다.

> 청태 4년 정유(937) 5월 정승 김부가 금으로 새기고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 하나를 바치니 길이가 10위, 새겨 넣은 장식이 62개였다. 이것을 진평

19) 최광식, 박대재 역주, 『삼국유사』(1)기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290쪽 ; 『삼국유사』(2), 13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왕의 천사대라 한다. 태조가 이것을 받아서 내고에 두었다.

천사옥대와 관련된 내용이 고려 왕건과 관련되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천사옥대'와 '황룡사 구층탑'의 후고려는 후의 고려[왕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경명왕조에서 신라도 모르는 옥대의 행방을 고려 왕건이 물어 본 것은 이상하다. 이는 옥대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고려 왕건을 등장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삼국유사』 천사옥대 항목의 분주에 937년 신라로부터 옥대를 건네받은 인연을 미리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또한 고려 왕건과 신라는 시종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라를 침범하려고 했다는 것은 당시의 정세와 맞지 않는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왕건의 고려를 고려로 칭하지 않고 대부분 '본조(本朝)'라고 칭하고 있다. 물론 본조라 하지 않고 고려라 한 경우도 몇 사례가 보이지만 후백제와 관련된 기록에서만 보이고 신라와 관련된 기록에서 왕건의 고려를 고려로 표기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후고려'의 고려는 왕건의 고려로 볼 수 없다.

다음은 후고려를 말 그래로 궁예의 고려 즉 후고려로 볼 수 있는가이다. 천사옥대나 황룡사 구층탑의 경우 시간 순서상 신라 진평왕의 천사옥대를 언급하고 이어 '후고려왕'의 신라 정벌을 언급했다면 당연히 진평왕과 시기를 같이하는 고구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 삼보를 언급하면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공격이라면 고구려는 아니다.

견훤이 신라 왕도를 쳐들어 온 경우가 있고, 궁예는 부석사에 있는 신라왕의 초상화를 베고 신라를 멸도라 부를 정도로 신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상황이 이렇다면 견훤이나 궁예로부터 신라를 지켜 낼 삼보의 중요성은 당연하다. 따라서 신라를 정벌하려 했지만 신라 3보가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 나라는 고구려나 왕건의 고려가 아닌 궁예의 고려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포악한 군주로 알려져 있는 궁예가 신라 3보 때문에 신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라 정벌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궁예를 일면 합리적인 군주로 묘사할 수 있는가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신라 3보의 신성함을 드려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후고려'왕을 두둔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궁예에 대한 왕건이나 이후 고려시대 사람들의 인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왕건이 세운 나라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왕력의 서술 태도를 보면 궁예가 '고려'를 세웠다고 했으니 궁예의 '고려'를 그대로 계승한 것처럼 되어있다.[20]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려는 모두 고구려의 고려를 의미하는데 몇 경우는 왕건의 고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총 7번에 걸쳐서 왕건의 고려를 말하고 있다.[21] 이 7번의 고려는 모두 후백제 견훤전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의 고려[왕건]는 후백제의 입장 즉 견훤이나 박영규의 입장에서 고려[왕건]라고 칭하였고, 오월국의 입장에서 고려[왕건]라고 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주몽의 고구려를 가리키는 회수가 총 69회인데 - 전고려나 후고려는 제외하고 - 이 가운데 61회가 고려라고 하고 있다. 대부분 주몽의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서는 왕건의 고려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을까? 왕건과 관련될 경우 그냥 '태조'라 하고 왕건의 고려와 관련될 경우 고려가 아닌 '본조'라 하고 있다. 본조는 총 22회가 보인다. 22회 가운데 2회는 신라를 말한다.

지금도 우리가 부를 땐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보다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고구려를 고려로 부른다고 해도 왕건의 고려 사람에게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문제는 고려가 망

20) 『삼국유사』 왕력, "太祖戊寅六月爵死 太祖卽位于鐵原京 己卯 移都松岳郡"

21)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 "與高麗兵會戰於一善郡/ 吳越國使班尙書至 傳王言召旨 知卿與高麗 久通和好/ 又移文高麗/ 萱遣一吉 以舡兵入高麗禮城江/ 萱謂子曰 老父新羅之季 立後百濟名 有年于今矣 兵倍於北軍 尙爾不利 殆天假手爲高麗 蓋歸順於北王 保首領矣/ 甄萱婿將軍英規密語其妻曰 大王勤勞四十餘年 功業垂成 一旦以家人之禍 失地 從於高麗/ 況聞高麗王公仁厚慤儉/"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하고 조선이 들어왔을 때이다. 한편 신라를 본조라 한 경우도 있는데[22] 위 기록이 신라시대에 쓰여 졌거나 아니면 고려시대 신라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6. 『제왕운기』의 궁예와 왕건 인식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주몽의 나라를 '고구려기(高句麗紀)', 궁예의 나라를 '후고려기(後高麗紀)'라고 하여 주몽의 나라를 고구려라고 하고 궁예의 나라를 후고려라고 하고 있다. 이승휴도 『삼국사기』의 견해를 취해 주몽의 나라를 통칭할 땐 '고구려'라고 하였다.

이승휴는 궁예가 고려-마진-태봉으로 나라이름을 바꾸었지만 궁예를 통칭할 땐 '고려'로 부르고 고구려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후고려'라고 한 것 같다. 이승휴의 구분법인 고구려 – 후고려 – 본조[고려]에서 궁예의 나라를 '후'고려라고 하면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구려가 고려로 나라이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궁예의 고려가 왕건의 고려보다 앞서서 등장하여 혼란을 줌에도 불구하고 '후고려'라고 불렀던 것 같다.

고구려-후고려-고려의 구분법은 조선시대 편찬된 『고려사』 등으로 이어졌다. 『삼국사기』이래 궁예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있었지만 『제왕운기』나 『고려사』등에서는 궁예의 나라를 '후고려', 왕건의 나라를 '고려'라 했으므로 나라이름의 측면에서는 궁예와 왕건의 계승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사』에서 궁예를 언급할 때 '폐주(廢主)'라 하지 않고 '전주(前主)'라고 하여 다소 존중된 표현을 쓴 것은 왕건이 궁예가 세운 고려란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려진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

---

22) 『삼국유사』 원광서학, "本朝君臣敬重爲師"
『삼국유사』 자장정율, "藏以本朝經像未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7. 현 역사교과서의 궁예와 왕건 인식

주몽의 고려 – 궁예의 고려 – 왕건의 고려로 이어지는 계승관계는 나라이름의 측면에서 왕건의 고려시대에 전고려 – 후고려 – 본조[고려]로 구분되어 불리어졌다. 다만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 마진, 태봉 – 본조[고려]로 불렀는데 주몽의 고려를 고구려로 통칭하고 궁예의 고려는 지워버렸다. 『삼국사기』보다 후대에 편찬된 『삼국유사』에서는 전고려 – 후고려 – 본조[고려]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부식이 주몽의 나라를 고려가 아닌 고구려로 통칭하면서 주몽의 나라는 점차 고구려로 불려졌다. 하지만 주몽의 나라가 고구려로 통칭되어도 궁예가 세운 고려란 나라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조선시대의 『고려사』에 '후고려'로 살아남아 고구려 – 후고려 – 고려로 이어졌다. 여전히 나라이름의 측면에서 궁예와 왕건은 '후고려'와 '고려'로 계승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계승관계가 끊어졌다. 현 학계와 현 교과서에는 이들의 계승관계가 고구려 – 후고구려 – 고려로 이어지고 있다. 궁예의 고려 즉 후고려가 후고구려로 불려진 것은 조선시대 후기 이후의 일이다. 즉 후고구려는 근래에 만들어진 나라이름이다. 왜 궁예의 후고려가 후고구려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후'고려란 나라이름 때문으로 생각된다. 후고려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려란 나라가 있었음을 전제하는데 주몽의 나라가 『삼국사기』 이래 '고구려'로 불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고구려 – 후고려 – 고려라고 했을 때 왜 왕건의 고려 이전에 왜 '후'고려가 있게 되는지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궁예가 주몽의 나라를 계승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주몽의 나라가 고구려라면 궁예의 나라도 후고구려가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 후고구려 – 고려의 구분법은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이번 발표에서 다루게 될 궁예와 왕건의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 버리는 것이다. 적어도 나라이름의 측면에서만큼 남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아있던 궁예와 왕건의 계승관계가 이제 오히려 나라이름 측면에서 둘의 단절을 부치기고 있다. 왜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는데 왕건은 '고려'라고 했나요? 라고 물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왕건이 궁예를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궁예가 썼던 '고구려'란 나라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대답할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8. 강진불교계의 동향과 궁예 왕건 인식

지금까지 후고려 궁예와 고려 왕건의 계승관계를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이나 『삼국사기』『삼국유사』『제왕운기』와 『고려사』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두 왕건이 궁예를 죽이고 고려란 나라를 세운 918년과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궁예가 죽은 918년을 전후한 당대의 기록을 통해 궁예와 왕건의 계승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 강진 무위사 전경

전남 강진 무위사의 선각대사 형미는 917년 궁예에 의해 살해된 선종승려이다. 궁예가 형미를 죽인 이듬해인 918년 궁예는 왕건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궁예에 의해 죽은 선각대사 형미에 대한 평가는 곧 왕건의 궁예에 대한 평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921년에 죽은 법경대사 경유비도 참조하고자 한다. 경유의 비는 경기도 개풍에 있지만 그는 강진과 이웃한 전남 영양 출신으로 918년 왕건이 개성으로 불러들인 선종 승려다. 선각대사 형미는 917년에 죽었지만 비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은 946년에 세워졌고, 법경대사 경유는 921년에 죽었지만 비석은 944년에 세워졌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두 비의 일부와 번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23]

그림 7]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비

無爲岬寺先覺大師碑

(전략)

四海沸騰三韓騷擾

至九年八月中 ①前主永平北▨ 須▨南征 所以▨發舳艫親駈車駕 此時羅州歸命 屯軍於浦嶼之傍 武府逆鱗動衆於郊畿之場

(천우) 9년(912, 태봉 2년) 8월에 이르러 ① 전 주께서 북쪽지역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남쪽을 평정하고자 하시었다. 그래서 큰 배들을 일으키어 친히 수레를 몰고 오셨다. 이때 나주는 항복하였으므로 강가의 섬에 군대를 멈추었지만, 武府[무진주=광주]는 저항하였으므로 경기에서 무리를 일으키셨다.

此時▨」②大王聞_大師近從吳越 新到秦韓 匿摩尼於海隅 藏美玉於天表 所以先飛_丹詔遽屈道竿_大師奉制奔波 趁風猛浪 親窺虎翼 暗縮龍頭 僧▨▨壽吳王轉明之于▨▨」其後班師之際 特請同歸 信宿之間 臻于北岸 遂於▨那▨▨旨拂▨▨ 供給之資 出於內庫 無以加也

이때에 ② 대 왕께서는 일찍이 대사가 근래에 오월에서 진한[우리나라]으로 들어오셔서 마니보주를 바닷가에 감추고, 미옥을 하늘 바깥에 감추고 계시다는 것을 들어 알고 계셨다. 그래서 먼저 글[丹詔]을 내어 스님의 道

23) 선각대사비와 법경대사비의 원문과 번역은 아래를 참조하였다.
김영미, 「오룡사 법경대사 보조혜광탑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1996 ; 김인호, 「무위가 선각대사 편광탑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1996 ; 최연식, 앞의 글, 2004, 201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竿에 공경을 표시하니, 대사는 왕명[制]을 받들어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거치 파도를 헤치고 달려왔다. 직접 호랑이와 같은 기세를 살펴보시고 가만히 (대사의) 용과 같은 지혜를 가만히 숙이셨다. 강승회가 오왕을 더욱 밝게 한 것에 더할 것이 없다. 그 후 군대를 돌이킬 때에 특별히 (스님에게) 함께 돌아갈 것을 청하였고, 2~3일 사이에 북쪽해안에 이르렀다. 마침내 --- ---(스님이) 사용하는 비용은 모두 內庫에서 지출되었다.

所恨群魔難伏衆病莫除唯奉法以栖眞迺▨▨▨▨▨▨▨今▨禍者遍▨▨▨」

枉殺無辜而乃遭艱者塡其雲屯同歸有罪然則澄公道德敢悛胡石之兇慧始仁慈寧止赫連之暴况又永言移國唯御胄契人謂多疑者▨不信

以十▨▨▨▨▨▨日」③大王驟飛鳳筆 令赴龍庭 冀聞絕跡之譚 猶認無言之理_大師狼忙入內 _④主上鴞立當軒 難測端倪 失於擧指 豈思就日 玄高之獲悝皆君無▨瞻▨日 ▨▨入終遭僞代 是▨謂」業對將至 因緣靡逃 兼被崔皓懷奸寇謙▨▨_⑤大王謂_大師曰 吾師 人間慈父 世上導師 何有存非 不無彼此 大師方知禍急 网避危期

(천우) 14년 ▨월 ▨일에 ③大王께서 조서[鳳筆]를 보내 (스님에게) 대궐 뜰로 오게 하였는데, 자취가 끊어진 (선법의) 법문을 듣고서 오히려 말이 없는 이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대사가 당황하여 대궐로 들어가 보니 ④主上은 마루에 우뚝 서 있었고,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업의 과보가 이른 것으로서 인연(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최호의 간사한 마음과 구겸지의 ---을 입은 것이기도 하였다. ⑤大王께서 대사에게 이르기를 "우리 스님은 인간 세상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이시니, 어찌 나쁜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지만 편드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사는 이에 화가 미칠 것을 알았지만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략)

豈謂秦原▨▨▨▨▨即世之君」漢室龍興 當」⑥今上居尊之際 謂群臣曰 竊惟故_大師 道高十地 德冠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어찌 진나라가 (멸망하듯) --- 임금이 급히 세상을 떠나고 한나라가 크게 일어나듯 ⑥今上께서 왕위에 오를 때가 있을 줄 생각하였겠는가. (금상께서는) 여러 신하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돌아가신 대사는 도는 십지(의 보살)보다 높고, 덕은 여러 --보다 뛰어났다.

(하략)

五龍寺 法鏡大師碑

(상략)

天祐五年七月 達于武州之會津 此時兵戎滿地賊寇滔天 (중략) ⑦先王直從北發 專事南征 徇地之行 逃天者少 特差華介 先詣禪扃 奉傳詔書 赴軍壁也令」大師欻聆 帝命 寧滯王程 及其方到柳營 便邀蘭殿 留連再三 付囑重疊 寡人遽迴龍旆 祇俯鳳儀 大師難趍乘輿 續起▨▨▨▨▨▨▨▨▨▨」

천우 5년(908) 7월 무주의 회진으로 돌아왔다. 이때 군대는 땅에 가득하고 도적은 곳곳에 횡행하였다. (중략) ⑦先王이 곧바로 북쪽에서 길을 떠나 남쪽의 정벌에 나섰다. 길을 따라 오시니 하늘(=국왕)을 벗어날 사람이 없었다. 특별히 사신을 보내 먼저 스님의 선실에 이르러 군영으로 오라는 조서를 전하였다. 대사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자 임금의 행차를 지체시킬 수 없어 (곧바로 나아갔다). 군영에 당도하지 곧바로 임금의 처소로 맞이하였다. "과인이 급히 군대를 돌이켜야 하니 스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대사는 임금의 수레에 타는 것을 꺼려하였지만 곧이어 (임금을 따라 가려는 마음을?) 내었다.

(중략)

▨▨之」兇 翻剗忠貞之佐 凌夷之漸 實冠夏殷 此時共恨⑧獨夫 潛思明主 (중략) ⑨今上 西鍾定議 北極居尊 懸聖日於桑津 掃妖氛於棗海

흉악한 무리들이 충정한 사람들을 해치니 나라의 쇠퇴함이 날로 하의 걸왕, 은의 주왕 때보다 심하였다. 이때에 모두 ⑧獨夫를 원망하여 현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한 임금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중략) ⑨今上께서는 서쪽에서 의논을 정하시고 왕위에 오르시니 신성한 태양이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고 요망한 기운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중략)
(陰記)
神聖⑩大王」
(하략)

선각대사 형미는 경문왕 4년(864) 무주[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속성은 최씨다. 헌강왕 4년(878) 15세에 보림사의 체징선사를 찾아갔다.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진성여왕 5년(891) 중국에 유학하였다. 42세 때인 효공왕 9년(905) 무주의 회진현으로 귀국하였다. 912년 나주를 점령한 후고려의 선왕을 따라 철원으로 가서 917년 궁예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를 기리는 비는 946년(정종1) 강진 무위사에 세워졌다.

법경대사 경유는 진성여왕 때 구족계를 받고 902년 이전 당에 유학 갔다가 908년 무주의 회진으로 귀국하였다. 918년 이전 궁예와 나주에서 만났으며 왕건이 궁예를 죽인 918년 이후 서울로 와서 왕사의 예우를 받았다. 921년 51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혜종 1년(944) 비가 세워졌다.

궁예의 불교는 소위 '미륵관심법'이라고 하여 정통적인 불교가 아니라고 하여 당시 불교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각대사 형미도 궁예의 손에 죽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승려 석총이 궁예의 교리를 사특한 설 괴이한 말이라고 하여 비판하자 궁예가 그를 철퇴로 쳐 죽였다고 하였다. 신하들은 가만히 있다가 포악한 독부(獨夫)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하여 왕건을 앞세워 궁예를 죽였다고 한다. 독부는 『서경』에 '독부수(獨夫受)'[24]라 하여 민심이 이반하여 홀로 남은 군주라는 뜻으로 포악하여 천명이 돌아서고 인심이 배반한 군주를 지칭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오룡사 법경대사 경유비에도 '함께 독부를 한탄하며 몰래 밝은 군주를 생각한다'[共恨⑧獨夫潛思明主][25]라는 구절에 독부란 용어가 등장한다. 독부를 궁예에 비유하였듯이 경유나 형미 등은 궁예와 연결되지 않고 왕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선각대사비에도 보이는 '대왕'도 당연히 왕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선각대사비를 새롭게 해석하여 비의 '대왕'을 왕건이 아닌 궁예로 보는 견해가 제출되었다.[26] 912년 대왕이 단조(丹詔)를 내리고 내고(內庫)에서 물자를 내었다고 하는데 단조나 내고는 당대의 왕인 대왕과 어울리는 용어라고 하였다. 왕건의 업적으로 알려진 나주경략도 실은 궁예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선각대사비의 "①前主永平北~"에서 천우 9년(912) 대왕이 '친히 남정하였다'고 하였고, 법경대사비에도 '친히 남정하였다⑦先王~'라고 한데서 왕건이 아니라 선왕[궁예]이 직접 나주 경략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각대사도 왕건의 의해 초치된 것이 아니고 궁예의 의해 초치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궁예가 선종에 대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우대했으며 궁예의 선종 우대 정책이 그대로 왕건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27] 선각대사비에는 전주(前主), 대왕(大王), 주상(主上), 금상(今上) 등 왕을 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①전주(前主)가 궁예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를 같은 비에서 '대왕'으로도 칭

24) 受는 폭군 紂王의 이름.

25) 君臣▨▨父子▨▨▨▨▨▨之」兇翻剗忠貞之佐凌夷之漸實冠夏殷此時共恨(8)獨夫潛思明主. 군신이 ---하고, 부자가 ---하여, ---의 흉악한 무리들을 ---하고 충성스럽고 곧은 신하들을 베어 점점 쇠퇴함이 실로 하은보다 심하였다. 이 때 함께 독부[궁예]를 한스럽게 여기고 명주[왕건]를 생각하였다(김영미 역, 「오룡사 법경대시비」, 『역주나말여초금석문』, 혜안, 2006, 191쪽).

26) 최연식,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비를 통해 본 궁예 행적의 재검토」, 『목각과 문자』7호, 2011 ; 최연식, 앞의 글, 2013.

27) 조범환, 「선각대사 형미 비문과 최언위」, 목간학회 발표요지문, 2012.4.2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할 수 있을까는 모두가 품어보는 의심이다. 따라서 ②③⑤대왕을 보통 왕건으로 보아왔다. 법경대사비에서는 궁예를 독부라고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선각대사비에서 '대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28]

또한 선각대사비의 전주는 신라 선덕여왕을 여주(女主)라고 했듯이 대왕보다는 아래 호칭으로 전주와 대왕이 같은 등급의 인물을 칭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단조나 내고도 912년 태봉의 왕인 궁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된 태조 왕건을 왕처럼 여겨 왕건이 왕이 아니었을 때도 소급해서 왕만이 쓰는 단조나 내고란 용어를 썼다고 보았다. 법경대사비에서 독부라 불렀다가 궁예를 先王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선왕은 궁예이고 ⑨금상도 왕건이 아니라 혜종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29] 금상이 왕건이라면 음기의 고려 왕건의 시호인 ⑩신성대왕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30]

같은 비문을 놓고 정반대의 입장이 나온 셈이다. 궁예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인 셈이다. 최연식의 주장대로 대왕이 궁예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궁예에 대한 인식은 180도 달라져야하며 통설을 대변하는 조범환의 비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런데 같은 비문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궁예와 왕건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로 파악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준 영향이다. 그래서 궁예가 썼던 고려란 나라이름을 왕건이 그대로 다시 썼다는 점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신하인 왕건이 왕인 궁예를 죽이고 나서 그 왕이 썼던 나라이름을 다시 쓴다는 것은 둘의 관계를 단절적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발표자는 예전부터 왕건이 부정한

28) 조범환은 최연식이 법경대사비의 '독부'에 대해선 이렇다 말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29) 조범환, 앞의 글, 2012.
30) 조범환, 앞의 글, 201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것은 궁예 말년의 태봉이지 궁예가 처음 세운 고려는 아니라고 하였다.[31] 왕건이 궁예를 죽였지만 궁예의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었고 궁예를 인정하자니 신하가 왕을 죽인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왕건의 궁예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입장이기도 했다.

선각대사 형비의 비에서 궁예를 전주라 한 것이 낮춰 부른 것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폐주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궁예를 전주라고 부른 것은 일정부분 궁예를 존중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선각대사비의 전주를 대왕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천우 9년 당시를 차시(此時)라고 하면서 당시의 군주인 궁예를 대왕이라 부르고 거기에 조응하여 내고에서 물자를 내었다고 보아도 된다.[32]

법경대사비에도 궁예를 선왕이라고 했다가 독부라고 한 것은 고려를 세운 궁예를 인정하지만 태봉의 궁예에 대해서는 독부라고 불렀다고 보면 된다. 법경대사비의 선왕과 독부는 궁예이며 금상은 왕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기는 왕건 사후에 새겨진 것으로 보면 된다.

여기서 선각대사 형미비와 법경대사 경유비를 같은 사람 즉 최언위가 썼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비문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 졌다. 따라서 두 비문을 서로 비교하면 비문에서 지칭하는 공통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다. 특히 형미비의 ①前主永平北▨須▨南征과 경유비의 ⑦先王直從北發 專事南征의 두 구절은 永과 直, 平과 從, 北과 北, ▨와 發, 須와 專, ▨와 事, 南征과 南征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와 선왕은 같은 이를 말한다. ⑦先王에 대해선 궁예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하지만 ①前主에 대해선 모두 궁예로 보고 있다.

---

31) 조경철, 「한국의 나라이름과 국호계승의식」, 『한민족연구』14, 2014.

32) 此時條」(2)大王聞 大師近從吳越新到秦韓晉摩尼於海隅藏美玉於天表所以先飛丹詔遽屈道竿 大師奉制奔波趁風猛浪親窺虎翼暗縮龍頭僧▨▨壽吳王轉明之下▨▨」無以加也其後班師之際特請同歸信宿之間臻于北岸遂於▨▨▨▨拂▨▨供給之資出於內庫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①前主와 ⑦先王은 같은 인물이므로 ⑦先王도 궁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미비의 전주와 선왕도 궁예를 말하며 경유비의 선왕과 대왕도 궁예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918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낸 이후 왕건은 왕을 죽인 정당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 정당성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917년 궁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선각대사 형미의 비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왕건은 궁예를 죽인 이듬해 즉 형미가 죽은 2년 뒤 개성 오관산에 형미의 탑을 세운다. 당연히 이곳에 탑비를 세워서 궁예의 잔혹한 정치에 의해 승려 형미가 죽은 것을 대서특필하고 왕건이 궁예를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쓰면 될 일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형미의 비문은 태조 말년 이후인 940년경에 쓰였고 비석은 정종 때인 946년에 세워졌다. 또한 궁예를 독부라 적고 있는 법경대사 경유도 921년에 죽었으므로 법경대사비를 통해 궁예를 죽인 왕건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 또한 943년경 비문이 쓰이고 944년에 비석이 세워졌다. 이를 두고 조범환은 당시 비를 쓸 만한 사람이 없었고 찬자인 최언위가 937년 고려에 귀부하였기 때문에 비문과 비석이 늦어졌다고 하였다.[33]

하지만 918년 혁명에 성공한 왕건의 입장에서는 한가롭게 비문을 쓸 사람을 기다려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울 만큼 여유가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미와 경유의 비석이 늦어진 것은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궁예가 형미를 죽이는 장면을 선각대사비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천우 14년 0월 0일에 大王께서 조서를 보내 (스님에게) 대궐 뜰로 오게 하였는데 (선법의) 법문을 듣고서 오히려 말이 없는 이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대사가 당황하여 대궐로 들어가 보니 主上은 마루에 우뚝 서있었고,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님은) 어찌 할 바를

33) 조범환, 앞의 글, 201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몰라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을까 생각하였다. 현고가 억울함을 당한 것은 모두 임금이 --- 살펴봄이 없기 때문이다. --- 사람이 --- 마침내 잘못된 시대를 만난 것이었다. 이것은 업의 과보가 이른 것으로서 인연(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최호의 간사한 마음과 구겸지의 --을 입은 것이기도 하였다. 대왕께서 대사에게 이르기를 "우리 스님은 인간 세상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이시니,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지만 편드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사는 이에 화가 미칠 것을 알았지만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문에는 대사를 존중하는 대왕[궁예]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업의 과보', '최호'나 '구겸지'같은 불교를 배척하는 무리들을 등장시키거나, '편드는 사람' 등을 언급하면서 궁예가 형미를 죽인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한 궁예보다 궁예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한 주변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4] 궁예를 죽인 왕건의 고려에서 쓰여진 비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궁예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고려 태조는 물론 혜종, 정종 등 고려 전기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917년 형미가 죽었고, 921년 경유가 죽었음에도 빨리 비문이 작성되지 않았던 것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형미나 경유는 모두 궁예와 연결되는 승려들인데 형미와 경유의 비석을 쓰게 되면 당연히 궁예에 대한 평가와 918년 궁예의 죽음을 언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형미와 경유의 비문이 궁예가 죽은 20여년 뒤에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왕건의 궁예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 적대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34) 백번 양보하여 여기의 대왕을 왕건이라고 본다면 왕건의 자애로움을 보여주는 구절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왕건과 대비하여 궁예의 잔혹성을 언급해야 하는데, 형미를 죽인 궁예의 잔혹성이 비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선각대사비에 궁예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궁예를 옹호한 셈이 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당시 선종 불교계는 궁예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왕건에 대해선 우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나주 경략은 왕건의 업적 중 특기할 만한 일이며 나주 경략을 계기로 왕건이 이쪽 지역의 선승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바로 형미와 경유가 대표적인 선승들이다. 그런데 형미가 궁예의 폭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당시 불교계는 왕건의 집권을 계기로 형미의 죽음에 대한 부당성을 드러내며 궁예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미와 경유에 대한 비문과 비석이 늦어진 것은 당시 불교계가 궁예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형미와 경유의 경우 왕건과 연결되기 이전에 이미 궁예와 관련을 맺었던 선승들로 보아야한다. 이것은 형미와 경유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진표의 미륵신앙 뿐만 아니라 화엄신앙[35] 등 다양한 불교신앙에 궁예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심은 왕건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여겨진다.

9. 맺음말

이번 글의 제목에 보이는 '후고려' 궁예의 후고려는 궁예가 세운 나라가 고려였기 때문에 후세 사가들이 궁예의 고려를 구분하여 부른 나라이름이다. 고구려가 고려로 나라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궁예의 고려를 후고려로 부른 것이다. 지금 부르고 있는 후고구려는 당연히 후고려로 고쳐 불러야 한다.

궁예와 왕건의 관계에 대해서 신하인 왕건이 궁예를 죽였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만 파악되었는데 이는 궁예가 세운 고려란 나라이름을 왕건이 그대로 다시 사용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왕건이 궁예의 고려란 나라이름을 그대로 계승한 것을 보면 왕건이 부정한 것은 궁예의 태봉이었지 궁예가 세운

35) 최연식의 주장대로 『표하론』이 후고구려[후고려]의 문헌이라고 한다면 후고구려 궁예의 화엄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처음 세운 고려는 아니었다.

궁예와 왕건의 계승관계는 당대에 활약했던 강진 무위사의 선각대사 형미의 비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917년 형미는 궁예의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918년 왕건이 궁예를 죽였음에도 형비의 비석은 946년에 쓰여 졌고 궁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최언위가 쓴 형미비와 前主永平北▨ 須▨南征과 경유비의 先王直從北發 專事南征의 두 구절은 같은 사건 즉 궁예의 나주 공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와 선왕은 같은 인물 궁예를 말하는 것이 된다. 형미비와 경유비의 전주, 선왕, 대왕은 궁예를 말하며 고려 초기에 궁예에 대한 호칭이 이렇다면 왕건이 궁예를 일정부분 인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투고일 : 2016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0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2월 05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참고문헌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대각국사문집』권11, 「與大宋行者顔顯書」
『대각문사문집』권11, 「上大宋淨源法師書」
『삼국사기』 신라본기 흥덕왕 2년
『삼국유사』
『고려사』

三品彰英撰, 1975,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村上四男찬, 1994, 『三國遺事考證』(下之一), 塙書房
김영미, 1996, 「오룡사 법경대사 보조혜광탑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김인호, 1996, 「무위가 선각대사 편광탑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강인구 외 역주, 2002, 『역주삼국유사』(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한국학중앙연구원]
조범환, 2012.4.28, 「선각대사 형미 비문과 최언위」, 목간학회 발표요지문
최연식, 2004,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와 나말여초 화엄학의 일동향」, 『한국사연구』126
최진열, 2012, 「당대 고구려 표기 기피현상」, 『동북아역사논총』38
최연식, 2013, 「후고구려 불교의 재검토」, 『보조사상』40
조경철, 2014, 「한국의 나라이름과 국호계승의식」, 『한민족연구』14
최광식, 박대재 역주, 2014, 『삼국유사』(1)기이, 고려대학교출판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

Abstract

Succession of Hu-Coryo[後高麗] Gungye[弓裔] and Coryo[高麗] Wanggun[王建] and a Trend of Gangjin[康津]-Buddhism

Jo, Gyungcheol
(Name of Country Institute of History)

Hu-Coryo[後高麗] is a country which Gungye[弓裔] established. In fact the name of country Gungye[弓裔] established is Coryo[高麗].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Coryo of Gungye and Coryo of Jumong[朱蒙] we call Hu-Coryo. Coguro[高句麗] change its name of country to Coryo in 4~5c. Later Gungye[弓裔] change its name of country to Majin[摩震] and Taebong[泰封].

We often regarded relationship between Gungye and Wanggun as a hostile relationship because Wanggun killed King Gungye. However on the other hand Wanggun succeed Wanggun. Wanggun reuse the name of country, Coryo of Gungye.

Succession between Gungye and Wanggun appears in Hyeongmi' stele in Muwe Temple, Gangjin, Jeonnam. Hyeongmi[迥微] was killed by Gungye in 917. Gungye was killed by Wanggun in 918. By the way Hyeongmi' stele kept silent about Gungye's despotism. Additionally Hyeongmi' stele and Gyungyu[慶猷]'s stele called Gungye Great King[大王] or Pre-Master[前主]. Judging from these steles Wanggun succeed Gungye. Wanggun denied Taebog of Gungye.

Keywords: Hu-Coryo[後高麗], Coryo[高麗], the name of country[國號], Gungye[弓裔], Wanggun[王建], Hyeongmi[迥微], Gyungyu[慶猷], Gangjin[康津]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1(KST)